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2) - 「고하 송진우의 동아일보 경영」

고하 송진우는 구한말인 1890년 5월 8일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독립에의 집념을 불태우던 독립운동가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다가 1945년 12월 30일 서울시 종로구의 자택에서 향년 55세로 비명횡사하였다.

이런 그의 일생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민족지도자, 독립운동가, 교육자, 언론인, 정치가 등의 다양한 호칭이 따라 붙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인이 된 이후로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24년을 보낸 동아일보와의 인연을 빼놓고 송진우를 논할 수는 없다.

1921년 9월 제3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고하는 1936년 11월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퇴진할 때까지, 사장(11년 8월), 주필(2년 6월), 고문(6월) 등 다양한 직책으로 활동했다. 이후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폐간되자 다시 청산위원장 및 사후 건물관리회사인 동본사 사장을 맡았다.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맞서 동아일보와 운명을 같이 한 셈이다.

고하는 동아일보의 전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장으로서 경영권은 물론이고, 편집에도 간여하여 신문의 논조와 기사 방향, 활동 등의 모든 면을 관장하면서 직접 사설도 썼다. 김동환(1901-?)이 발행하던 <삼천리>는 1930년 1월호에서 3대 신문사 사장들에 대한 인물평을 게재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한다.

같은 신문 사장(社長)이라도 계가 직접 붓을 들어 사시(社是)를 결정하며 또 지상(紙上)으로 중흥비약하는 타입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 저는 사(社)의 인격적 대표로 외면의 사고와 내면의 경영을 통관하고 있는 두 개의 타입이 있다. 동아의 송진우 씨는 전자형이며, 조선의 신석우 씨와 중외의 안희제 씨는 후자형에 속한다.



<삼천리> 14호에 게재된 3대 신문사 사장 인물평

이렇게 당시 신문사 사장 중에 고하처럼 전권을 휘두르며 전전후로 활동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때문에 그에
게는 경영인이나 편집인 같은 용어로는 표현이 마땅치가 않았다. 그래서 신문사 안팎에서는 ‘신문 독재자’로
약명이 높았다. 그렇지만 고하는 이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자임하면서 자기가 소신하는 바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이런 그를 두고 세간의 호기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1933년 12월에 발행된 한 일간지의 호외에는 「소문의 소
문, 송 사장과 독재자」라는 기사가 실렸다.

최근 동아일보에 입사한 한 신입사원이 술회하여 이르되, “나는 그 전에 송진우 씨라면 그저 고집투성이 독재자로
만 알았더니, 이번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보니까 아주 말과는 판판입니다. 그야 신문 제작에 대하여서는 모든 점을 통
솔하는 관계상 자연 독재적으로 나가는 점도 없지 않지만, 아침 9시면 벌써 출근하여 다른 사원이 거의 다 나간 오후
6, 7시까지 편집국에 혼자 떡 버티고 앉아서 새로 찍혀 나온 신문을 글자 한 자 빼어놓지 않고 살살이 주워 읽는 열성
에는 정말 감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글자 한 자라도 잘못 쓸래야 잘못 쓸 수가 있어야지요. 역시 송진우 씨
는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 현대어로 고침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내용이 있다. 오후 늦게까지 편집국에 혼자 앉아서 새로 찍혀 나온 신문을 글자 한 자 빼
어놓지 않고 살살이 주워 읽는다는 증언이다. 얼핏 보기에는 고하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말처럼 느껴
진다. 그러나 경영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사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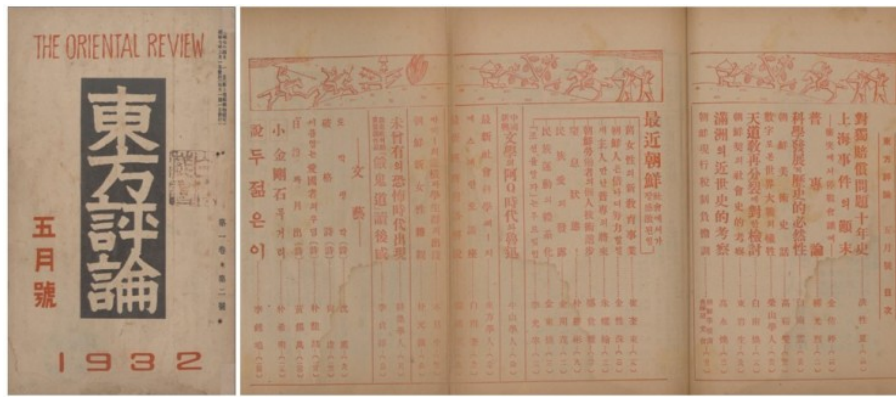
당시 총독부는 언론 통제를 위해 검열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들이 정한 기준에 저촉되면 삭제, 배포금지, 압수,
계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행정처분이 단 1행(行)만 있어도 재 인쇄를 하게 되어 자재, 인력, 시간 등
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창간 2주일 만인 1921년 4월 15일자 사회면 기사 ‘평양에서 만세 소
요’가 처음 발매배포금지를 당한 후, 그해 9월 제1차 정간이 되기까지 6개월 동안에 24건에 달하는 행정조치
가 잇따랐다. 따라서 고하는 직접 편집에 간여하면서 불필요한 설화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한 것이다.

신문독재자 고하의 면모는 언론 경영인의 입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안정적인 경영 상태
를 유지하게 된 이유로 평가된다. 1921년 동아일보와 동시에 출범한 조선일보는 1933년 1월 방응모가 신문
을 인수할 때까지 경영진이 수차례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였고, 1924년 최남선이 창간한 시대일보도 창간 직
후부터 경영난으로 허덕이며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경영주가 교체되고
있었다. 1930년대 초반까지 경쟁사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경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비할 때,
동아일보의 경영은 순탄한 편이었다.

<동방평론> 1932년 5월호에는 당시 세 신문사의 경영 상황을 자세하게 비교 설명하는 평론이 게재되었다.

"현하 조선의 신문은 일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조선·중앙 양 씨는 필경 휴간의 비운을 안
고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게 되었으니, ‘동아’ 홀로 굳은 반석 위에서 태평악(太平樂)을 울리고 있는 팔자이다. 이로
써 종래 정립지세(鼎立之勢)를 형성하여 오던 조선의 민간 신문계는 거세(巨勢)의 폭풍 앞에서 전전긍긍하게 되었
다.(중략) 조선의 신문은 거개가 파쟁의 역사로 일관한 폐단이 있다. <동아>가 초기에 적은 파란을 겪은 일이 있으
나, 송진우 씨 통제가 된 후부터는 완전히 이 권내(圈內)에서 벗어나 안은(安穩, 평안함을 나타내는 불교 용어)한 상
태에 들어갔음에 반(反)하여, <조선>은 혁신 후에 얼마 안 되어서부터 암투가 시작되어 타파 세력의 구축, 자파 세력
의 부식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다."



<동방평론> 1932년 5월호 표지와 목차

고하가 사장에 취임하던 당시 동아일보의 운영은 날마다 빛 독촉은 물론이고 분주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런 동아일보를 안정적인 바탕 위에 올려놓은 것은 고하의 경영 능력이었다. 언론학자인 정진석은 언론경영인으로서 고하의 유능함을 나타낸 세 가지 사례로 ‘1921년 만국기자대회 김동성 기자 파견’ ‘1922년부터 시작된 전국적 지국 확장’ ‘재외동포 위안회 사업’을 들고 있다.

송진우는 1921년 9월 14일 사장에 취임하자 민활한 수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취임한 직후에 미국 하와이에서 만국기자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김동성 기사를 파견하여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직이었으나,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신문이 발간하기 시작한 후에 처음 있는 일로 언론사상 최대의 경사로 선전되어 동아일보의 위상을 높이고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동아의 경영을 새로 맡은 송진우의 수완을 발휘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아일보사사(東亞日報社史)는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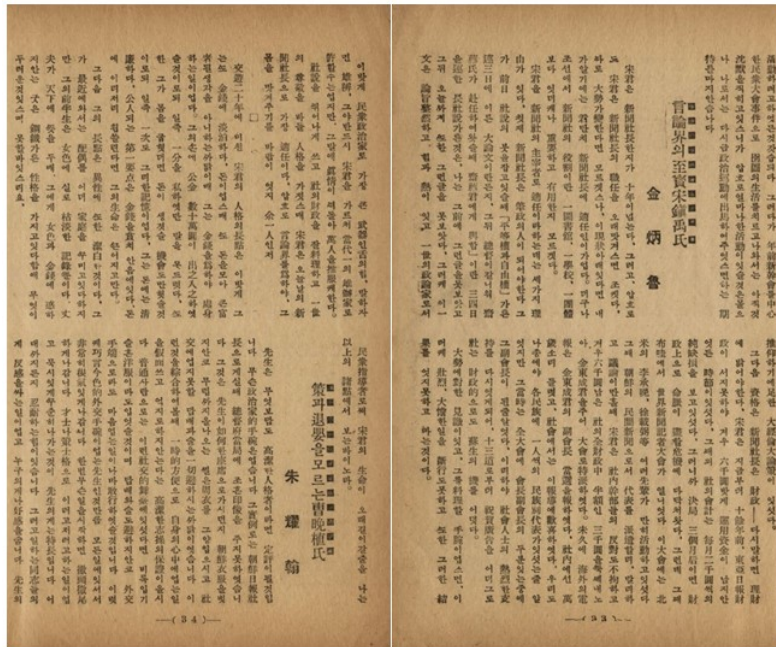
1921년 10월 하와이에서 제2차 만국기자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다. … 대회 회장 명의의 초청장을 받고 본보는 9월 19일 제2차 중역회의를 열어 이 대회에 참석할 것을 결정, 그 대표로 미국에서 신문학을 전공한 바 있는 조사부장 김동성을 선정하고, 그 여비조로 2천원을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회에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은 만국기자대회라는 국제회의가 본보를 초청했다는 것이 다만 본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계의 영광이 아닐 수 없었고, 둘째로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국가대표로 초청되었다는 감격 이런 것이 본보를 여분(與奮, 여론을 떨치다는 뜻)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 이 대회에서 김동성은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하략)

이 내용만 보면 고하의 역할이 무엇이며, 왜 동아일보 경영에 도움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고하의 오랜 친구로 범조인으로 활동하던 김병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신문사 사장의 자격은 이제에 밝아야 한다. 송 군은 지금부터 10여 년 전 동아일보 재정이 서지 못하여 겨우 6천원 밖에 운전자금이 남지 않았던 시절이다. 그때 신문사의 회계는 매월 2천 원씩의 순 결손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3개월 후면 재정상으로 회사의 맥이 끝날 위기가 닥쳐왔다. 그런데 그때 하와이에서 세계기자대회가 열렸다. … 송 군은 사내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겨우 6천원 남은 전 재정 중에 반액인 3천원을 김동성 군에게 주어 대회로 특파하였다. 얼마 오래지 않아서 김동성 군의 부회장 당선 소식이 전해졌다.

사내에는 만세소리가 들렸고, 사회에서는 이 보도에 환희하였다. 우리는 나중이야 각 민족에 1인씩의 민족별 대표가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당시는 전 대회에 회장, 부회장 두 분이 있는 중에 그 부회장이 된 줄 알았다. … 이리하여 사회 인사의 열렬한 지지를 다시 얻게 되어, 13도(道)로부터 축하광고를 얻었고 회사는 재정적으로 소생의 기회를 얻었다. 대세에 대한 식견이 있고, 그를 요리할 수완이 있으면 이렇게 장렬하고 대담한 일을 단행도 못하고 또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삼천리〉 7-3호(1935.3)에 실린 김병로의 「언론계의 지보 송진우 씨」

이 글에서 고하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4-5만원에 달하는 모금이 이루어져 일가에 재정 상태를 호전시킨 ‘신의 한 수’가 되었다. 고하가 김동성의 하와이 출장을 결정할 때에는 일본의 방해도 조건을 하나의 참가국으로 인정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마치 사운(社運)을 건 도박처럼 보였지만, 고하의 결단과 고집으로 성사되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유광열은 고하의 신문경영인으로서의 선견지명과 담대한 실행력의 결과로 평가했다.

이렇게 김동성을 만국기자대회에 파견하여 경영 상황을 크게 호전시킨 고하는 취임한 지 5개월 후인 1922년 2월 제1차 전국 지국장 회의를 열어 조직의 결속을 도모했다. 이 무렵 동아일보 지국의 조직망은 국내 뿐 아니라, 조선족 교포가 밀집한 만주까지 뻗어 나갔다. 이것이 경쟁사들에 비해 보급망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송진우는 ‘재외동포 위안회’를 발기하여 국내 동포로 하여금 해외 동포들에 대한 애족심을 높이고, 해외동포들에게는 조국애를 고취시켜 상호 일체감을 가지도록 일대 국민운동을 일으켰다. 이 사업은 10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85개 지역을 돌면서 순회 강연하였고 여기에 동원된 청중은 6만여 명에 이르는 대 성황을 이루어 입장료가 3만 5천여원에 달하였다. 이 수입과 이자 수입을 합쳐 북간도, 만주, 중국, 일본, 미국 등지의 해외동포 2세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도 송진우가 추진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동아일보는 1923년 상무취체역 겸 편집국장이던 이상협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상품 광고를 적극 유치했다. 결과 1923년 동아일보 전체 광고량에서 도쿄와 오사카 등의 일본 상품 광고가 36%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50%에 육박하다가 1925년부터는 60% 내외에서 오르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협이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하여 단독으로 오사카의 광고시장을 개척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동아일보의 전권을 가진 사장 송진우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21년 9월 14일 동아일보 제3대 사장에 취임한 고하 송진우는 언론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동아일보의 재정 상태를 크게 호전시켰을 뿐 아니라,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의 중심에 서서 동아일보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러나 1924년 4월에 발생한 친일파 ‘박춘금의 육혈포 협박사건’으로 인하여 동아일보 사장에서 퇴진하게 된다. 이때부터 경영권을 놓고 신문 개혁을 내세워 홍명희를 사장에 앉히려는 사회주의 세력과 동아일보를 지키려는 송진우 간의 치열한 경영권 대결이 벌어진다. 이제까지 한 번도 지면에 소개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다음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